

## 책으로 부르는 '노년찬가'

출판계 금기 깨고 일정한 흐름 이뤄

늙음은 서럽고 추하고 피하고 싶은 것이다. 이런 생각은 출판기획에도 반영돼 나이 먹는 것을 성찰한 서적은 거의 없었다. <나이 드는 것의 미덕>에 대한 조용한 환호를 계기로 나이를 다룬 책이 늘어날 조짐이다.



가수 양희은 같은 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 편하다”고 말하지만, 나이 먹는 것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 세대다. 이런 인식은 예나 지금이나 다름이 없다. 오히려, 예전에 늙음을 더욱 뜨악해 했다. 옛시조의 ‘이고 진 저 늙음이’는 ‘늙기도 서러운데’ 짐을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고려장’ 풍습 같은 것에 생각이 미치면, 늙음은 차라리 비참에 가깝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개화된 세상에서도 ‘청춘예찬’은 소리높여 불려졌으며 ‘노년예찬’은 없었다.

### 나이 드는 것의 미덕 설파

얼마전까지 출판계에서 ‘나이’는 암묵적 금기어 가운데 하나였다. 되도록 넓은 연령대를 독자층으로 확보하자니, 굳이 나이를 들먹일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게다가 20대 초반 여성독자들의 ‘포섭’ 여부가 베스트셀러의 ‘관건’이었으므로, 이들의 구미에 맞는 책들이 주로 기획됐다.

출판기획자들이 ‘나이’에 눈을 돌린 건 비교적 최근의 일이다. 밀레니엄 교체기를 한두해 앞둔 1998년 말에서 1999년 초 사이 새천년을 향한 포부와 전망을 담은 엔솔로지가 집중 출간됐던 바, 이 틈에 끼여 ‘나이’를 화두로 삼은 책도 나왔다. 그러나 <나이 들면 뭘 할까>(김 원 외, 지호)는 기획의 참신성에도 불구하고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런 점에서 지미 카터의 <나이 드는 것의 미덕>(김은령 옮김, 이끌리오)의 호조는 뜻밖이다.

이 책은 3만부의 판매고를 올리며 이끌리오(옛 ‘끌리오’)가 펴낸 책 중에서 가장 많은 판매부수를 기록중이다.

이 책은 미국의 39대 대통령을 지낸 카터가 그의 아내 로절린과 나눈 대화에 기반하고 있다. 나이 드는 일이 얼마나 멋진 일인지 설명했다. 칠순을 맞을 무렵, ‘바바라 월터스 쇼’에 출연한 카터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질문을 받는다. “당신은 흥미진진하고 도전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 중 최고는 언제였다고 생각합니까?” 잠시 후 카터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지금인 것 같군요.”

카터는 나이가 들수록 지혜로워진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한다. 여기서 지혜란 “인생에서 중요하지만 확실치 않은 일에 대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이다. 카터가 말하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은 두가지다. 나이 들어 받게 될 “축복”이 그 하나고,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다른 하나다.

한성열 교수(고려대 심리학)가 편역한 <노년기의 의미와 즐거움>(학지사)은 20세기를 대표하는 심리학자 세사람의 노년관을 정리한 책이다. 이들은 한결같이 노년을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본다. ‘전생애 발달이론’의 에릭슨은 “노인들은 종종 순진하고 솔직한 면이 어린이와 같”다고 말한다. 따라서 노년기를 즐겁게 보내려면, 어릴적의 여러 특징을 되살리는 일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행동주의 심리학을 대표하는 스키너는 노년을 피로에 비유한다. 편히 쉬거나 휴가를 보낸다고 해서 회복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단서를 붙이지만 말이다. 노년기에는 육체의 피로뿐 아니라 정신의 피로도 나타난다. 망각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스키너는 지적인 ‘자기관리’를 제안한다. 토론을 조직하고, 비슷한 관심을 가진 사람을 찾아다니라고 충고한다.

### 내면세계 발견에 도움돼

인본주의 심리학자 로저스는 78살 때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을 나는 분명히 알고 있다. 그렇지만 내적인 면에서 나는 늙지도 않고 젊지도 않다”고 했다. 중년기의 의미와 즐거움을 짚어본 짐 콘웨이의 <남자 나이 마흔이 된다는 것>(한성열 옮김, 학지사)은 92년 나온 책으로 이번에 재출간됐다.

정신과전문의 김정일 박사(김정일 정신과의원 원장)는 “나이 먹는 것에 대한 반응은 사람과 성격에 따라 다르다. 선진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일수록 나이와 조화를 추구하는 경향이 있다. 사회적 기준에 민감한 외향적인 사람은 나이에 과민하고, 내향적인 사람은 나이가 들면 오히려 편해진다”고 말했다. 김박사는 나이 드는 것의 미덕을 설파하는 책들이 “각자 자기 내면을 발견하고, 감정을 다스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나이 먹는 것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책들은 이제 겨우 ‘지류’를 형성했다. 그렇다고 이런 흐름을 간과해선 안된다. 망망대해도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하는 법이다. — 최성일 기자